

광주도시공사 '사랑의 헌혈행사'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8일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빛고을고객센터에서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 <광주도시공사 제공>

광주·전남재향군인회, 31사단·기무부대 방문



광주·전남 재향군인회(회장 이연득) 임직원 및 회원은 지난 25 UFG 훈련에 참가중인 31사단(사단장 소장 권 삼)과 기무부대(부대장 대령 한중철)를 방문했다. <광주·전남 재향군인회 제공>

광주조달청, 담양 기업 현장으로 청취



광주지방조달청(청장 박정환) 직·직원들은 최근 담양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에 소재한 (주)에스티(대표 공현우)를 찾아 지역기업의 애로·건의 사항을 들었다. <광주지방조달청 제공>

김경순 조선대 교수 '매경 신진학자논문상'

김경순(사진)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매경 신진학자논문상'을 수상했다. 수상 논문은 '자발적 기술혁신 공개와 경영의 기회주의'로, 김경순 교수, 이진희 오산대 교수, 박연우 중앙대 교수가 공동연구한 결과물이다. 이 논문은 SSCI 저널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에 게재가 확정됐다. 한국경영학회는 매년 한 차례 열리는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에 신진학자들의 참여를 높이고 한국경영학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매경 신진학자 논문상을 신설했다. 신진학자논문상은 부교수 혹은 조교수가 연구의 주저자로 되어있는 논문 가운데 가장 뛰어난 논문 3편을 선정, 수상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는 공동체 문화 살아 나으면”

세월호 가족극단 다음달 5일 광산문화예회관 '이웃에 살고...' 공연

시민들 보내준 위로 보답... 안산 이어 전국서 두번째 상연 김태현 연출가 “세월호 묻혀진 진실 찾는데 도움 됐으면”

“세월호 가족들에게 이웃은 엄청난 상처를 안겨준 존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아픔을 이기고 살아갈 힘을 전해준 존재이기도 합니다. 4·16 이후의 '이웃'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세월호 유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가 광주에서 공연된다. 4.16 유가족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극단 '노란리본'이 연극을 만들었다. 연출가는 김태현씨.

김 연출가는 “아픔을 돌볼 틈도 없이 싸워야 하는 시간 속에서 유가족들은 서로를 붙들었다”며 “그랬던 이들이 가족극단을 만들어 시민들이 보내준 위로에 보답하기 위해 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는 연극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실 지난 2014년 4월16일 이후 세월호 유가족의 삶은 살이라고 말하기에는 고통스러울 그 자체였다. 온갖 루머와도 싸워야했으며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는 정부의 무관심과도 싸워야 했다. 진실규명을 위한 싸움은 그렇게 지난하게 전개돼 왔다.

세월호 가족극단 '노란리본'이 9월5일 오후 7시30분 광산문화예회관에서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를 공연한다.

경기 안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상연하는 이번 연극은 광주시민상주모임과 광산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다. 이번 연극은 극단 '컬러'의 레퍼토리 작품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를 바탕으로 세월호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아 새롭게 구성했다.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는 문화,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힘을 모으는 공동체 문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공연이 그러한 문화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했지요.”

김 연출가는 전체적인 줄거리는 경기 안산의 한 연립주택에 이사 온 전라도 시골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펼쳐진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월호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한 가족을 알게 된다.

어느 날 안산의 한 연립주택에 전라도 시골



지난 7월 서울에 있는 '연극실현실 해화동1번지'에서 공연한 4·16 가족극단의 모습.

할아버지가 이사를 온다. 연립주택에는 총각 나재찬, 딸과 둘이 사는 한대철, 세월호 유가족 출신에 등이 살고 있다. 부녀회장과 동네 주민들은 온갖 소문을 들먹이며 소리 없는 공격과 은근한 따돌림으로 세월호 유가족을 괴롭힌다.

시골 할아버지는 이들 사이에서 사람들을 달래가며 서로를 돕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과연 할아버지의 노력대로 모두가 진실을 알아가며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

체로 거듭날 수 있을까? 김 연출가는 “연극을 매개로 세월호의 묻혀진 진실을 찾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나아가 관객분들이 배우들과 공감하고 함께 어울리는 진짜 이웃들이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은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공연관람은 광주문화예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광산구 문화기획팀 062-960-8989.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롯데장학재단은 27일 전남대와 조선대에 재학 중인 지역우수인재 12명에게 장학금 총 3500만원을 전달했다.

지역우수인재 12명에 장학금 3500만원 전달

롯데백화점 광주점·롯데장학재단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김정환)과 롯데장학재단은 27일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전남대 5명과 조선대 7명 등 지역우수인재 12명에게 총 3500만원 장학금을 전달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 지난 2013년부터 매학기 우수인재를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수여식을 포함해 5년간 총 173명에게 4억 65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롯데백화점과 장학재단은 또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점 등 최소한의 요건

만 충족되면 매학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정하(여·21·전남대 경영학과)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학금을 받게 돼 학비마련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도움을 받은 만큼 배울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광주점장은 “지역과 고객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사회로 환원하는 활동은 기업의 당연한 의무”라며 “지역 내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 특’ 참여 독서클럽 ‘우산책사랑’ 최우수상

전남대(총장 정병석)가 범시도민 독서운동 '2017 광주·전남이 읽고 특 하다'이하 광주·전남 특에 참여한 독서클럽 144팀 중 8팀을 우수 클럽으로 선정, 최근 시상식을 가졌다.

시상식에서는 '우산책사랑' 팀이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비롯 우수상에 '힐링스쿨'과 '빛고을독서클럽', 장려상에 '도래섬' '화구구이' '머큐리모여라' '책향' '문흥독서사랑' 팀이 각각 수상했다. 전남대학교 이번 우수 독서클럽 선정에서 계획적인 독서모임과 독서의 다양성 등을 가장 큰 평가지표로 삼았으며, 사업에 대한 협조



도와 '광주·전남 특' 행사 참여도, 홈페이지 활용도 등을 반영했다. 특히 올해는 우수 독서클럽 선정에 6팀에서 8팀으로 늘려 더 많은 클럽에 혜택이 돌아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방광암 투병 '포크계 대부' 조동진씨 별세

방광암으로 투병 중이던 '포크계의 대부' 조동진이 28일 오전 3시43분 별세했다. 향년 70세. 조동진은 최근 방광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다. 그는 다음 달 16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꿈의 작업 2017-우리 같이 있을 동안에' 공연을 열 예정이었다.

1966년 미8군 밴드로 음악을 시작한 조동진은 록그룹 '헤그리'와 '동방의 빛'의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로 활동했다. 1979년 '행복한 사람'이 담긴 1집 '조동진'을 발표하며 서정성 짙은 포크 음악으로 반향을 얻었다. 당시 한대수, 김민기 등이 시대 유행을 담은 포크의 흐름을



이끌었다면 그의 음악은 관조적인 시선의 노랫말과 아름다운 선율로 물감을 바퀴놓았다. 1990년대에는 동생인 조동익·조동희 남매와 정필문, 이규호 등의 뮤지션들이 모인 음악공동체 하나음악을 이끌며 '한국 언더그라운드 음악의 대부'로 불리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2남(조범구, 조승구)이 있으며 발인은 30일 오전 5시30분이다. 빈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병원 장례식장 9호실, 장지는 벽제 순화원이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김 성(강진약국 대표 약사)·심광희씨 아들 건수군 최영준(전 광주MBC 사장)·안 란씨 딸 지형양=9월3일(일) 낮 12시 광주시 동구 지산동 신안파크호텔. ▲유지상·공 란씨 아들 성현군 김관중(농협)·윤현숙씨 딸 보라양=9월2일(토) 오후 1시30분 지평동 JS웨딩컨벤션 3층. ▲이용채·문인순씨 장남 성현(정형외과 전문의)군 최환연(광산장학재단 사무국장)·민애자씨 장녀 선영(약사)양=9월2일(토) 오후 2시20분 광전동 라페스타 2층 엘루체홀. ▲김우성(전남도 농업박물관장·전 광주일보 논설실장)·정옥자(담양중 교육복지사)씨 장남 종남(위대상 QA팀)군 임병태(휴먼테크 대표)·최순이씨 장녀 지혜(연구원)양=9월9일(토) 오전 11시50분 광주시 서구 광전동 라페스타 2층 엘루체홀. ▲김길원(전 대보엔지니어링 대표)·임선희 씨 장남 성용(서울 동작경찰서 경위)군 김덕호·배은희 씨 장녀 숙 양=9월10일(일) 오후 5시 더 처플 옛 창동 3층 커티

지홀(광남 논현동), 피로연=9월2일(토) 오후 6시 홀리데이인 호텔 3층 (상무지구 DJ센터 건너편).

동창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강열) 월례회=9월 5일(화) 오후 6시30분 화랑 공회관 062-224-1800.

알림

- ▲월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엘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 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례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 오후 5시 061-285-1161.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 운영=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무료 상담 062-654-3802.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북구지역주민(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 대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부 방과후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화순 호사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 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

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광주대학교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양택, 음택, 수맥, 나경/입향론, 비결복명당, 장법요강 등 이론과 현상. 문의 010-3609-

- 8117. ▲청춘FC 토요축구 회원 모집=축구를 사랑하는 50~60대 모집. 토요일 오후 2시30분 광주교육대학교 감독 010-2684-4490. ▲(사)정통풍수지리연구학회는 풍수지리학을 올바르게 아는 길. 무료 공개강좌. 9월4일 오후 7시. 문의 010-3640-8277.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손님용 독방 및 침구제공, 아침 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 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4.

부음

▲허귀열씨 별세 허인성(장성군 청소년수련원)·훈화씨 부친상 양은숙씨 시부상 이기행(조대병원)씨 방부상=발인 29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Advertisement for a memorial service for a deceased person. Title: '삼가 故人之冥福을 빕니다'. Includes details for four services: 201호 故전순례 님(여/76세), 301호 故구광자 님(여/84세), 401호 故문양덕 님(여/85세), 402호 故홍희상 님(남/52세), 101호 故한효숙 님(여/62세), 102호 故오정태 님(남/51세). Contact info: 062-227-4000, www.mykumho.com.